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18년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11월 27일 (화)

참 석

최순영 위원장	박성희 대표이사
전애리 위원	신하연 편성제작국장
이동후 위원	이재상 뉴스제작팀장
김국래 위원	황선대 콘텐츠제작팀장
최진봉 위원	이선희 시청자심의팀장
김민찬 위원	정윤지 시청자심의팀

시청자심의팀

최순영 위원장:

오늘 6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됩니다. 11월 시청자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 대표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대표: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되고...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사실 11월은 10월말 개편 변화에 대한 편성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달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밤 뉴스라인 시간대를 10분 당기고 5분 늘리고 했는데 뉴스 시간대 바꾸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시청 흐름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바뀌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변화를 줬는데 흐름이 과연 어떨지...걱정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다행히 4주 지났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시청률도 괜찮고 뉴스 패턴도 좋아지고 해서 자리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초저녁 6시 시간대는 경인 지역의 지역 방송으로써 로컬 띠로 의욕을 가지고 설정한 시간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희 여건상 섞여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걸 기본 틀로 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지역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로망다큐 가족+는 요즘 세태가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고 고령화 되어 가는데 인생2막을 다루는 시의성 있는 주제가 분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면서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명불허전2도 지난 주 처음으로 방송 내보냈는데 기존 틀 유지하면서 새로운 느낌 주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위원님들께서도 차츰 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가을 개편에 조금 투자도 하고 변화도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위원장: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OBS 이제 볼 거 많아졌다고. 날로 변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제안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도국 그 다음에 미디어 전략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

이재상 뉴스제작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호칭 관계 대해서 남측 북측으로 합의를 하고 OBS 비롯한 모든 언론인들이 북측을 북한이라 지칭하고...용어 선택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북한을 독립적 국가로 인정하거나 북한을 호칭할 때는 북한이라고 하고 둘 관계 속에 남측 북측 구분 필요할 때는 남측과 북측을 구분해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다음은 미디어 전략국.

황선대 콘텐츠제작팀장:

네, 우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놀이터 쪽쪽쪽쪽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타겟 오디언스와 기획 의도가 정확하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원에 아카이브 된 것을 시청자들에게 우리 윈도우를 통해서 노출하고 재교육 차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트 홍보를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재교육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시즌2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고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고 의견을 주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고를 바로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넣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악은 좀 더 면밀하게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우투블링 기획의도가 맞는지 여쭙봐 주셨는데 보통 카테고리를 나누다 보니 레저 육아 등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 더 소구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약간 곱씹기식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종의 유인책, 이런 것이 있으니 한 번 맛 보실래요. 이 안에 들어와서 재밌게 즐기실래요 요런 차원의 입문의 느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내년엔 우리의 포맷이 맞게 제작단계부터 좀 방송에 맞는 세이프티존을 만든다든지 자막 위치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제작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윈도우 통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멀티유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 지난 회의 때 정조 능행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모니터를 해 주셨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모든 인력들이 총 출동해서 하는 대형 생방이기 때문에 마라톤 중계에 버금갈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현장의 혼란스러움...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공개 입찰을 하다 보니 본 행사 업체와 방송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업체가 해야 한다고 애길 하는데....현장에서 예를 들어 정조대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운드가 안 들리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업체가 수음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아쉬웠고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스럽긴 했지만...그래서 저희가 수원시나 문화재단에 얘기하는 게 한 업체가 예를 들어 저희 OBS가 현장도 하고 방송도 한다면 대단히 유기적이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큰 전광판에 이걸 띄워주는데 방송 영상이 나가야 하는데 현장 업체가 그렇다 보니 가끔 저희 걸 달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적 판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도국과 같이 얘기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우리 OBS의 이기주의가 콘텐츠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성을...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이 나중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아마 PT자료로 다 쓰일 겁니다.

전애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정조대왕 능해차, 수원 문화재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그렇다고 한다면 능행차 하는 업체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것 까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려하는 점은 너무 많이 바뀔까봐. 우리가 선임한 감독이나 지금 갖고 있는 포맷이 바뀌지 하는 우려가 없지 아니 있어요. 그런 것은...

황선대 콘텐츠제작팀장:

제가 답을 해드리면 이건 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거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방송을 위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 앵글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던가...만약에 황금갑옷을 갈아입는데 저희는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을 사실 잘 몰랐어요.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셨는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찍고 있을 순 없으니까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는데 금방 나와 버려서...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행렬이 너무 멋있어서 녹화를 해서 다음 3부 시작할 때 녹화한 걸 바로 틀었어요. 그래서 황금갑옷 입으시고 장안문 가시는 장면을 녹화 분을 먼저 들고 나갈 정도로 했습니다.

전애리 위원:

저도 사실 이걸 봤는데 약간 방송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에러사항이 있었군요. 회의할 때 잘 확인하겠습니다.

황선대 콘텐츠제작팀장:

위원장이신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성희 대표:

같이 하긴 해야 하는데 키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대 콘텐츠제작팀장:

PT도 들어 갈 겁니다.

최순영 위원장:

전애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이니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없으면 11월 시청자 위원회 의견서를 순서대로...먼저 김위원님 오시자마자 하겠습니다.

김국래 위원:

가나다 순으로만 하나요?

최순영 위원장:

거꾸로 할까요? 그럼 거꾸로 최위원님 가셔야하니까 먼저.

최진봉 위원:

로망다큐 가족+ 사장님 얘기해 주셔서 일정부분 의문이 풀렸는데 원래 가족 이라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포맷은 가족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관계 회복하고 사랑 확인하는 그런 포맷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런 부분이 약해졌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 2모작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로망다큐

가족이니까 약간 제목하고 실제 프로그램 내용하고는 일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인생 2모작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 했다고 봐요. 어제 밤에 방송된 영민씨의 염소 육아일기 같은 경우도 이분이 국가대표 하다가 체육관 접고 의성으로 귀농을 해서 겪었던 일들을 체험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처음에 염소들이 다 죽어서 힘들었던 점 등을 얘기 해주면서 귀농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은 자세하게 현실적이고 실질적 정보 제공했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갔던 부분은 도시에 살다 온 사람들은 시골마을에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소위 텃세라고 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분 행동을 보니 마을 일들을 대소사를 다 하고 실제 나이 많은 분들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지역 어르신 노인정 가서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친분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그 마을이 정착해서 청년지도자 되기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이런 점들도 실제 귀농자 입장에서 좋은 정보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알찬 정보를 제공해 줬고 또, 귀농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나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여주는 '로망다큐 가족'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 전을 버전을 보면 관계가 소홀한 부분이나 가족 간 사랑 같은 부분은 재발견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인생 2모작에 더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이 제목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목에 맞게 가족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키든지. 물론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귀농 반대했다가 생활에 적응하는 부분. 염소를 같이 관리하고 기르면서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가족들이 나들이 가서 시간 보내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약간. 지금 제가 어제만 봤을 땐 인생 2모작에 더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여 졌어요. 그래서 가족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제목을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분 먼저. 김민찬 위원님.

김민찬 위원:

일단, 독특한 연예뉴스 봤는데 최근 사실 왜 이정도 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이 의외로 이슈가 꽤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 업종에 있어서 이게 별 얘기가 아닌데 연예 적으로는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론 일반 대중들이 알만한 연예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흥미 위주...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의견 참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3번이나 나갈 뉴스거리인지 헷갈리긴 했습니다. 특성상 처음엔 명예훼손이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사과로 바뀌고 하다 보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의견서에 적진 않았지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신 여자 변호사님이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닷 관련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다른 기사들도 다 같이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MBN에도 그 변호사님이 나오시고 그러던데 나온 변호사님이 동일한 주제로 계속 나오시니까 왜 그러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오신 분을 꼭 섭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던 점? 그런 걸 보충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나오던 변호사 분들이 계속 쪽...그게 섭외가 쉬워서 그런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후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동후 위원:

네, 이번에 개편한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아까 최진봉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로망다큐 가족+라는 프로그램 이었는데요. 가족 기획 의도 보니 중장년 세대가 가진 로망을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가족들의 삶을 탐색하는 휴먼다큐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고령화시대에 수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이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 우리나라 TV의 중요한 시청층인 중장년층이 관심 가질 만한 인생 2모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소구력을 가진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 같은 걸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봤던 프로그램은 11월 5일, 12일, 19일 3회 정도를 봤습니다. 제주 살이, 산골 살이 아니면 귀농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들이 누리는 행복감,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이들의 삶과 일상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꿈꾸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던지 아니면 피곤한 일상 탈출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읽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이러한 로망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들 삶의 모습과 태도를 로망으로 읽힐 수 있도록 이들이 선택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고 이들의 인터뷰를 내레이션이나 매끄러운 이미지를 통해 경쾌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아름다운 자연풍광,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때에 따라선 드론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담아내면서 기존 육지나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에서도 과거 비교하여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면서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을 비교합니다. 굉장히 찌들었는데 맑아지고 얽매었는데 여유로워 지고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해지고 인공적이었는데 자연적이고 피폐했는데 힐링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제 2의 삶이 갖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에 사례가 삶의 질 뿐 아니라 경제적 면에서도 수월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로망이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단순히 용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사례들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로써의 현재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의 삶을 약간 지상천국으로 로망화 시키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섬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이들이 잘 사는 노하우를 단편적으로 선전하면서 또 다른 판타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들의 삶에서 묻어 나오는 삶의 질이나 행복의 의미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강조나 단편적인 재연은 오히려 이들 삶이 가질 수 있는 결의라던지 여운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중장년층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굉장히 정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던지 현재의 모습을 더 입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내레이션이나 인터뷰 질문이 가족이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담아내기 보단 예를 들어서 짝짝하고 애교 많은 은희씨 아니면 연장을 든 은희씨의 모습은 어찌 역할이 바뀐 것 같다. 빨래를 팍팍 삶아서 햇볕에 말리는 모든 주부들의 로망 이런 식의 정형적인 멘트는 조금 구태의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식의 정보는 약간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다룬다면 충분히 정보전달도 되면서 약간 여운과 감동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형성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작. 또 가족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우리시대 중장년층에게 화두를 던지고 공감을 일으키면서 노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박성희 대표:

논문을 써주셔서고.

최순영 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김국래 위원:

이동후 교수님 뒤에 해서 부담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같은 프로그램을 제가 선택을 안해서.

최순영 위원장:

김 위원님도 우리 이 위원님 못지않게 또 하시잖아요.

김국래 위원:

먼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5분 늦었는데 다음에 5분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OBS초대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3일에 개성공업지구 김진양 이사장을 초대해서 김진양 이사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시기 적절하고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나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만연해있어서 그것도 마치 퍼주기의 한 영역처럼 인식되어 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의의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실물 적으로 해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의의나 폐쇄 과정에 대한 부당성, 개성 공단에서 취업하고 있었던 북측 노동자들 임금에 대

한 진실의 문제. 이것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 등에 대한 해명. 개성공단의 순기능과 가치. 그래서 개성 공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이쪽 분야이다 보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 90분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대중 강연이나 단체 회원들이나 학생들 상대로 이런 얘길 하는데 제가 하는 것 보다 이걸 틀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물 적으로 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후에 저도 교육 자료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메라가 너무 김진양 이사장만 보고 있어서 가끔 자료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자료 화면이 사실 풀어내는 얘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수많은 수치를 얘기 하는데 수치라는 것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다시 쓰는 것 보단 눈에 보이고 그래 라던지 시각화 되는 게 더 강화되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 3, 4회에서는 전부 다 정치인 지방 자치 단체장 시의원 초대를 했는데요 1회와 다르게 2, 3, 4회차는...보면 1회부터 4회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하시는데....2, 3, 4회의 경우에는 주로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점은 1회와 다르게 2, 3, 4회는 저사람 얘기 하는 게 과연 저 정책의 방향이 맞나. 맞다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둘 다 그렇다고 치면 과연 지금 택한 저런 방식이 맞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나 검증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다음질문으로 이어지다 보니 저는 그게 조금 거북했습니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측면이 꽤 있어서...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팬참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3시 팬참습니까? 그러면 12월 시청자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3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시청자 위원회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